



급식수요 가세하면서 난가 강보합세 전망

◆ 동향

3월은 새학기 시작과 더불어 급식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명절이후에도 생산량 감소와 수요증가로 난가는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2월 들어 한차례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도권 특란기준 개당 161원을 형성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능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44개(2/21기준) 농가로 확대되었으며, 금번 고병원성 AI로 인해 산란계 살처분수는 130만수를 넘어섰다. 지난 12월기준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사육수는 6,169만수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이에 살처분 수수까지 감안하면 전년대비 약 4.1%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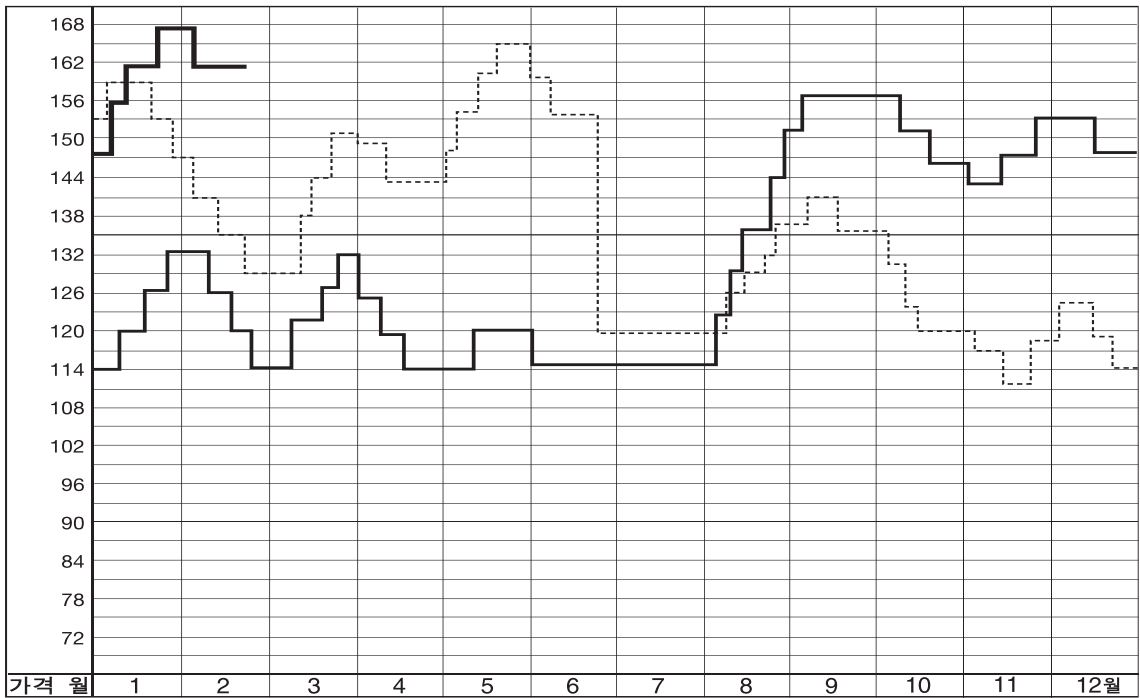
지난 1월 산란종계입식수는 11,000수로 나타났으며, 같은 달 산란실용계 판매수는 2,380수로 전년대비 7.4% 감소하였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종계 살처분을 감안하여 추산한 '11년 상반기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은 1,175만수로 살처분 이전 잠재력 대비 26.7% 감소하였다. 단순 수치상 잠재력일 뿐 산란종계 생산주령 연장을 통해 어느 정도 편차를 줄여갈 것으로 보이거나 상반기 병아리 공급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병아리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신계군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산란병아리 거래단가는 1,350원으로, 산란중추는 4,300원으로 상승하였으며, 노계출하감소로 노계수당 거래단가도 1,400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2/21기준).

12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28,726톤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하였고, 지난 10년도 육추사로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12월 184,342톤이 생산되어 전년 대비 2.1%증가, '10년 총 생산량은 1,981천톤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계란생산가담계군의 감소로 산지 난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겠으며 3월들어 급식수요가 가세하면서 난가는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표면적인 단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어 지속적인 가격상승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해 난가상승폭은 크지 않겠으나 공급량 감소로 산지 계란흐름은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지출부담도 커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계란수요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난가는 160원대로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가가 장기간 강세를 형성하고 있고, 신계군 수급불안으로 많은 농가에서 노계도태를 지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왕란 생산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노계군 생산증가로 인한 저품질 계란생산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9-- 2010 - 2011 -

▶ 병아리 · 사료 · 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중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1,200	1,595
2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3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4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5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6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7	2008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33,000	2,465	27.2	157.6	939	1,150
8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9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10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11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12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계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2008년 1월부터 중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A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